

농협 청년 조합원 1.58%… 고령화 심각

을 8월 기준 고령 조합원이 75.61%… 개선 시급
이원택, “100년 농협 위해 조합원 확대 방안 모색 해야”

박상래 기자

농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대표 조직인 농협도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조합원 중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연령별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농협조합원 수는 211만9,093명으로 고령 조합원은 70세 이상 조합원이 41.56%,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5.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고령화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도 적지 않았다. 2017년 1만621명, 2018년 1만1,313명, 2019년 1만1,925명, 2020년 7,181명 그리고 2021년에는 3,728명의 조합원이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했다. 연 평균 8,095명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사망, 이주, 자진탈퇴 등을 사유로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12만 7,000명이 감소했다. 이 정도 속도면 2030년에는 조합원수가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협에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연령대도 고령에 치우쳐 있다는 것.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조합원 신규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가입 조합원은 총 41만3,387명이다.

하지만 이중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33.20% 13만7,286명, 70세 이상은 15.92% 6만5,842명으로 60세 이상 신규가입자가 49.12%를 차지했다.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가입자는 고작 6.8%로 70세 이상 가입자의 절반도 안 되는 2만8,309명에 그쳤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 조합원은 농협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히며, “올 해 농협 60주년 인데 100년 농협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확장이 필수라며, 조합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브리핑



“반려동물과 교감-소통이 중요” 전북은행 JB문화공간, 설채현 수의사 강연

“반려동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와 종이 다른 동물은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호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야 합니다”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은 지난 14일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주제로 설채현 수의사의 강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설채현 수의사는 동물행동 치료와 관련, 국내 최초로 미국의 KPA(Karen Prayor Academy)의 공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한 동물 행동치료 전문가다.

그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비롯한 여러 반려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설채현 수의사는 “동물 행동치료도 수의학의 한 분야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동물들의 문제 행동은 바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농촌진흥청, 농작물 피해 최소화 당부

농촌진흥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7일 낮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 사이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 춥고, 중부내륙과 남부산지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수확이 어려울 경우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덮어 어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한다.

일반적으로 무는 0도 이하, 배추는 영하 8도 이하에서 어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경우 영하 3도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박상래 기자

국민연금, 말레이시아에 연금 운영 비법 전파

국민연금공단이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말레이시아 근로자적립기금(EPF)의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NPS Global Fellowship 2021을 실시한다.

공단은 연수생들의 니즈를 반영해 가입 확대, 연금관리 등 6대 연수 분야를 직접 선정했으며 진행방식도 기존의 강의 수강 및 질의응답 형식을 벗어나 더블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2명의 공단 현업 담당자로 구성된 멘토와 국내 대학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멘토가 연수생들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연수생들은 공단 직원 28명이 강사로 참여한 제도감의 동영상을 학습하며, 최종적으로 교수 멘토의 작성 지도를 통해 자국 연금제도 현안 개선에 활용할 프로젝트 보고서를 산출하게 된다.

/박상래 기자

하이트진로, 이탈리아 와인 6종 출시

하이트진로가 이탈리아 몬탈치노 지역에 위치한 300년 전통 와이너리 ‘치아치 피콜로미니 다라고나(Ciacchi Piccolomini d’Aragona)’의 와인 6종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7세기에 몬탈치노 주교가 설립한 치아치 와이너리는 1877년에 ‘치아치’ 가문이 매입하고, 1985년 당시 와이너리 관리인이었던 주세페 비앙키니에게 넘겨졌다. 주세페 비앙키니는 이후 포도원을 재정비하고 숙성실(셀라)을 새로 지으며 와이너리에 변화를 주었고, 오늘날 몬탈치노 지역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번에 수입하는 ‘치아치 피콜로미니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피안로소(Brunello di Montalcino Riserva Pianrosso)’는 이탈리아 대표 품종인 산지오베체를 100% 사용한 최상급 와인이다. 특히, 해발 고도 240~360미터에 위치한 ‘피안로소’ 포도원에서 자랐기 뛰어난 해에만 생산해,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질감이 특징이고,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 ‘치아치 피콜로미니 다라고나’ 와인 6종은 현대백화점(목동점, 천호점, 판교점, 신촌점) 및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경진원, 전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점검

하노이·뉴델리 센터 2개소와 전북 수출전략 점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5일 이사장인 신원식 신임 전라북도 정부부처와 전북도 및 경진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화상회의를 했다.

‘21년 경진원에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활용함으로써 한국·베트남·인도 3국의 관계자가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해외통상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북의 수출전략을 점검하고자 특별히 진행된 이번 회의는 베트남 하노이·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거점센터 2개소 센터장의 성과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1년 상반기 성과에 모두 주목했다.

지난 상반기 거점센터는 6회의 현지박람회 및 상담회를 운영하며 도내 67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 바 있다.

그밖에도 도내기업의 애로 해소를 상시 지원할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채널을 넘나드는 현지 홍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현지 마케팅은 도내 우수제품과 기업을 해외로 알리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는 중이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뉴델리 센터의 ‘글로벌파트너 지원사업’에 참여해 ‘21년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세호(전북 익산)의 사례가 소개됐다.

‘글로벌파트너 지원사업’은 카탈로그 등 홍보자료의 현지어 번역과 서류작성을 비롯한 각종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거점센터의 대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 상반기 현지 바이어 2천 개사 발굴에 성공했고, 도내 40여 기업과 매칭을 주선할 수 있었다.

/박상래 기자



전북 예담채, FTA기금사업 평가서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과수산업발전계획 계획달성도 등 심사

전북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

지난 15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리스트 부여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차평가는 각 사업시행주체에서 올 4월에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북도의 자율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의 계획달성도 및 전년대비 증가율 등의 실적 계량평가와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

전라북도 예담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9, 지역농협 20, 영농법인 5 등 총 34개의 참여조직으로 이루어진 전북농협 연합체이며, 전라북도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각 참여주체 노력의 결과 올해 평가에서

취급액 505억원, 조직화취급액 299억원, 인증과실취급액 90억, 수출액 30억원을 달성해 계량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상기후로 병해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박맞은 사과’를 네이밍한 상품을 준비하여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판매를 통해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극복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유통매장에 4주간 진행되는 릴레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등 판매량 확대에도 힘써 비계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예담채가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 증액이 가능하게 되어, 예담채 과수산업발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중심으로 광역마케팅을 활성화해, 전북 농산물의 경쟁력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전북·부안농협, 잣 담은 김치로 온정 나뉜

전북농협과 부안농협은 지난 15일 부안농협 육묘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농가에게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김치 나눔 봉사는 부안농협과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 회원들이 겨울철 본격적인 김장을 시작하기 전 김치 보릿고개로 밀란잔이 떨어진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김치 500포기(1톤 상당)를 직접 담가 전라북도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취약농가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철 조합장은 “본격적인 김장철 전에,



김치가 부족한 취약농가를 위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했다”며 “부안농협은 지속적인 나눔과 기부로 지역사회와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위한 점검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17일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현장 안전점검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 중이다.

/김종일 기자

농촌진흥청, ‘딸기 표준 유전체’ 완전 해독

농촌진흥청은 딸기 육종 기간을 앞당기고 경쟁력 있는 품종 육성을 위해 딸기 순계(동형접합성을 지닌 식물체)를 활용한 표준 유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우리나라 채소 생산액 1위 품목이 ‘딸기’로, 이번 유전체 해독 성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실려 학술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에서 딸기 유전체 해독이 이뤄졌지만, 순계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염색체가 완벽히 갖춰진 고품질 표준 유전체를 해독한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유전적으로 고정된 재료의 정확한 표준 유전체 구축으로 육종 효율을 높인다는 점, 나아가 육종의 자료(데이터) 주권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딸기는 쌍을 이루는 염색체가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지니는 ‘이형접합성’ 특성으로 종자가 아닌 줄기를 심어(포복경) 번식한

으로써 순계 육성이 어렵다고 여겨졌다.

여기에 8배체(4쌍 염색체) 유전체(2n=8x=56)를 지니고 있어 2배체(1쌍 염색체)인 고추, 배추 등보다 유전체 분석이 어려웠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8개 품종으로 100여 개의 딸기 순계를 육성했다. 그리고 이 딸기 계통 중 열매가 단단한 ‘원교3115호’를 선별했다.

연구진이 ‘원교3115호’의 표준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약 805Mbp(메가베이스페어) 크기의 유전체에 15만 개 유전자가 분포했다.

유전체 분석 결과, 열매의 단단함을 조절하는 데 특정 유전자(expansin, pectin acetyltransferase 등)가 관여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해독한 표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하면 전통 육종 방법에서 정밀 육종인 디지털 육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딸기의 품종 육성 기간을 현재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래 기자

국민연금, 안전 신호등 우산 전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 ‘혁신안전보건허브’ 참여 기관 합동으로 전주시 4개 초등학교에 ‘안전 신호등 우산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4개 학교는 전주반월초등학교, 전주삼천남초등학교, 전주평화초등학교, 전주효자초등학교 등이다.

‘혁신안전보건허브’는 지역사회 안전보건활동을 위해 구성된 6개 기관협의체로, 2020년부터 전주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안전점검 지원,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안전활동을 진행해왔다.

혁신안전보건허브 구성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이다.

김철환 국민연금공단 안전관리담당장 등 ‘혁



신안전보건허브’ 대표 6인은 스쿨존 빗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3가지 종류의 시인성이 뛰어난 ‘안전 신호등 우산’ 1,500여 개를 전주삼천남초등학교 등 4개교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 대상 초등학교는 지난해 전주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협의체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박상래 기자